

가제 : 제목없음(5분)

지하철을 타고 태호가 느낀 세상 혼자서 생각하는 공상과 현실 결국에 지하철을 내리면서 지하철안에 느낀 공상이 현실인지 아니면 지하철을 내려 살고 있는 세상이 진실의 세상인지 헷갈리며 돌아간다.

#S1. 지하철2호선으로 내려오는 길 또는 역사 오전 07:00

태호는 아침 지하철에 출근을 지나가는 전철을 놓치지 위해 역사로 뛰어갔으나 지하철은 다 나고 그 자리에 서있다.

태호 : 항상 매일같이 오는 지하철이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다리는 지하철은 또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지하철은 지나가버린다. 나는 맨앞에서 지하철 창문에 비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태호는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기울이고 있다

태호 : (나레이션_유튜브 쇼펜하우어) 인생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때는 욕망을 얻고자 욕망이 충족되었을때는 권태를 느끼며 미친 듯이 서있는 인간은 한낱 미물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욕망으로서 또는 권태로서 어느 무언가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대사) 나는 오늘도 전철을 기다렸지만 나의 사소한 욕망은 내가 지하철에 내렸을 때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바랄 뿐인 욕망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고 언제나 나는 그 욕망(지하철이 제때 왔으면)을 갈구 했다. 그러나, 언젠인가 내가 버스를 타고 내려서 바로 도착한 지하철을 탔을때는 또다른 욕망 앓고싶은 욕망이 생길뿐 어떠한 권태감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나 스스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할 뿐이었다. 나는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사람같은 뿐이었다.

#S2. 지하철2호선 역사 오전 07:10

태호의 눈은 다른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내 지하철 전동차 유리뒤로 비추는 남자는 당장이라도 숙취에 오바이트 할 것 같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그 뒤에 있는 할머니는 너무나도 허리가 굽어 당장이라도 부러질거 같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의 몸뚱이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쳐매며 인생의 가방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인 것처럼 표정은 어둡해 보였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은 이름도 없이 영혼도 없이 초점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내를 보여준다.

지하철 소리 : 지금역은 출발역인 잠실 잠실 역입니다.

지하철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 또 끌려가듯 서로를 욕망하듯 이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다.

태호 : (대사) 일전에 나는 설악산을 올라 갔던적이 있다 그 설악산의 운무는 내가 보았던

어떤 운무보다 아름다웠다. 기압의 고저차에 따라 산을 업고 지나가는 운무의 모습은 마치 내가 지금 서있는 지하철속에 서로 나가고자 또는 들어가고자하는 욕망의 모습과 같아보였다.

#S3. 상상속 모습

설악산의 그 수증기 또한 앞에 서있는 산을 넘어가려는 욕망 지하철에 빨리 타서 앉으려는 욕망, 돈을 벌어 자식들을 위해 무거운 문서가방을 들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들의 모습, 여자친구를 만나기위해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 모습, 사랑을 위해 도둑질을 위해 또는 정치를 위해 수많은 욕망들을 보여주면서 수증기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옆에서 보여준다.

#S4. 지하철2호선 역사 오전 07:20

사람이 많이 내리고 타는 지하철을 한번 보내고 첫 번째로 타기 위해 나는 서있었고 뒷사람들이 타게 나는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이 먼저 타게 손짓했다. 그러나 다음차량에 먼저 탈수 있게 자리를 잡는다.

태호 : 나는 사람많은 전철에서 앉아서 가는 법을 아는 남자이다. 나는 앉아서 갈때 나의 욕망이 채워지고 그날을 상쾌하게 보낼수 있다. 피식 웃어보인다 저사람들은 왜저렇게 서서가려고 애를 쓰는걸까...

지하철 소리 : 지금역은 출발역인 잠실 잠실 역입니다.

다음 전철이 들어오고 태호는 내리지도 않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지만 그 전철은 서서가는 전철이었다. 태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S4. 지하철2호선 전철 안 오전 07:20

태호는 비스듬이 기대어 지하철 전광판을 쳐다본다.

태호 : 지하철 전광판에는 매일 같은 뉴스 소식이 나온다, 누구보다 단정하게 가추어 입은 뉴스 여앵커는, 우리나라 건설사 PF대출 부실로 인해 경제가 언제나처럼 안좋을 예상이라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뉴스 등,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인들의 활동이 너무 어렵다는 등,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이니 내년이면 0.6이 되느니 경기하듯 출산율 저조 하다는 등, 어린아이가 부모를 게임세계와 혼동해 죽였다는 등 신난 것처럼 간추린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고, 날씨뉴스는 이번주 내내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는 뉴스가 들린다,

태호 : 비가올줄알았으면 장화와 우산을 들고 올걸 나는 항상 왜 이사실을 까먹을까 나는 항상 왜 이런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낄까 너무나 큰 분노가 느껴져서 나는 조금은 소심하게 발을 쿵 내딛었다. 또 내가 지하철을 앉지 못한채 서서가야하는 나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짜증나 또한번 발을 쿵 내딛었다. 또한 아침의 지하철의 냄새에 또 화가나 발을 쿵 내딛었다.

#S3. 지하철2호선 전철 안 오전 07:30

태호는 무심하게 핸드폰을 쳐다본다. 오늘일정을 확인해본다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검열작업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을 확인한다.